

할리스 혈값매각... 프랜차이즈 “M&A몸값 떨어질라” 고심

KG그룹, 할리스 지분 93.8% 취득 거래액 1450억... 업계 예상보다 낮아 아웃백·뚜레쥬르 등 M&A 외식업체 거래가격 등 디스카운트 평가 우려

커피전문점 브랜드 할리스커피가 KG그룹에 인수되자 외식업계는 해당 거래 가격에 관심을 쏟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이니시스는 할리스커피 지분 93.8%를 취득했다. KG이니시스는 165만3069주를 한 주당 8만7716원인 총 1450억원에 사들였다. 업계에서는 할리스커피 거래가 KG그룹과 IMM PE 모두에게 ‘원원’이란 평가를 내놓는다. 이번 거래를 통해 KG그룹은 식품료(F&B) 포트폴리오를 강화했고,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는 지분 매각, 배당, 자본재조정 등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KG그룹과 IMM PE 모두에게 긍정적인 거래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는 할리스커피의 거래가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 예상한 액수보다 거



할리스커피 매장 외관. /연합뉴스

래가격이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거래는 현재 M&A(인수합병)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업체 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주요 프랜차이즈로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한국법인(이하 아웃백), 뚜레쥬르(CJ푸드빌 뚜레쥬르사업부) 등이 있다.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보유한 매드포칼

릭, 놀부 등 장기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도 잠재적 매물로 이름을 올렸다.

프랜차이즈 매물이 넘치는 M&A 시장에서 거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본점과 가맹점 간 계약구조, 노조(노동조합) 관계, 최저임금 및 신규 입점 제한 등 규제가 엄격하고 프랜차이즈 특성상 기업으로선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서기란 쉽지 않다. 최근 프랜차이즈의 급

락한 성장성까지 고려하면 매력 떨어진다 평가가 우세하다.

결국 프랜차이즈 M&A 거래성사의 핵심은 가격이다. 그동안 국내 M&A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프랜차이즈 거래의 경우 EBITDA 멀티플 약 10배 가치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최근 시장 눈높이는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 멀티플(배수) 6~7배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할리스커피의 경우 약 6배~6.5배 안팎의 멀티플로 거래가 이뤄졌다. 앵커에쿼티파트너스의 투썸플레이스 인수(약 12~13배), TA어쏘시에이즈의 공차 인수(약 10~11배)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다.

공차코리아의 경우 홍콩 등 해외 시장 확장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와 차별점을 가진다.

반면 할리스커피의 경우 국내 점포만 갖고 있어 해외 시장 잠재력 및 확장성이 부족하고, 스타벅스라는 업계 최강자가 있어 점유율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신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가 난항을 겪으면서 디스카운트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국내 프랜차이즈도 사정은 비슷하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 최저임금 상승, 근무 시간 단축 등 규제 환경을 고려하면 경영 효율 개선에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비대면 트렌드 및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업계 트렌드도 변수로 떠올랐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주요 프랜차이즈의 경우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이 수반돼야 매각 성사가 가능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M&A 시장에서 여러 프랜차이즈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시장 및 규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 프랜차이즈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서 “눈높이 이견을 좁혀야 할 때. 즉 매각 측이 가격 조정을 받아들이고 거래 성사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할부금 안낼래요”... 약정없는 ‘스마트폰 자급제’ 뜬다

코로나19에 비대면 유통 확대되고 통신비 절약 ‘알뜰 소비자’ 늘어나 이동통신가입자 10% 자급제 사용

스마트폰을 4년째 쓰고 있는 직장인 이모씨(30)는 최근 휴대전화를 바꿨다. 이씨는 것처럼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찾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5G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이씨는 “2~3년 동안 이동통신사 약정에 묶여 있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제 값을 한번에 다 주고 구매하는 것이 더 마음도 편하고 깔끔하다”며 “공시지원금도 그다지 높지 않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게 가격 면에서도 더 이득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자급제 스마트폰 바람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대폰 비대면 유통이 늘어나고 있고, 통신비를 줄이려는 알뜰 소비자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는 각각 서비스·요금과 단말기에 집중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서 시민이 판매 게시물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2018년 12월 383만 3000여대로 추정되었던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수가 지난 7월에는 534만 9000여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중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 비중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1명은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하는 셈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갤럭시Z폴드2’ 자

급제 사전 판매는 조기 소진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이마트,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특정 신용카드를 쓸 경우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무이자할부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매장을 방문해 복잡한 설명을 듣기보다 여러 단말을 스스로 비교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편리성도 자급제 단말기 구매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후 2017년 3종에 불과했던 자급제 단말기 기종은 2018년 19종, 지난해 26종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는 5G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개통하는 것도 가능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급제 5G 단말기를 구매하고, 비교적 저렴한 알뜰폰 LTE 유심을 선택해 통신비를 절약할 수도 있다. 개통 또한 편의점에서 유심(USIM)을 산 후 단말에 끼우면 돼 간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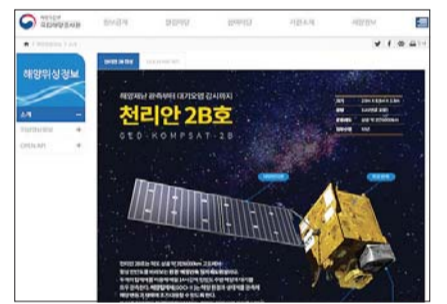
다만, 이동통신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두 배로 올리면서 재고처리에 나서 할인가격이나 혜택을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SK텔레콤은 이전까지 8만7000~17만원, KT는 8만6000~24만원, LG유플러스는 8만2000~22만7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요금제 별로 각각 최대 34만5000~48만원, 30만~50만원, 32만6000~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존 공시지원금보다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상향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 자급제 판매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지만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등 장기적으로는 자급제 단말기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민 기자 silkni@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 누리집의 천리안위성 2B호 소개 화면. /해수부

천리안위성 2B호 관측 해양환경 영상 일반공개 해수부, 8개월 성능시험 마쳐

해양수산부는 5일부터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을 통해 천리안위성 2B호가 관측한 해양영상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천리안위성 2B호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주변 해양과 대기 환경을 관측하는 정지궤도 위성으로, 지난 2월 19일 남아메리카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이후 약 8개월간 각종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운영을 시작한다. 지난 7월엔 해양관측 자료 분석시설인 해양위성 운영동도 건립,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

이번에 첫 공개하는 영상은 천리안위성 2B호에서 촬영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위성영상과 달 영상이다. 이 자료는 가공되지 않은 촬영 원본으로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누리집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환경위성센터 등 해양영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관에는 별도의 통신망을 통해 직접 제공한다.

천리안위성 2B호는 특히 기존 천리안위성 1호에 비해 성능이 대폭 향상된 해양탐색체를 장착하고 있어 표층해류나 적조 등 기존 관측자료 외에도 해무, 저염분수 등에 대한 다양한 해양정보를 생산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hys@

韓 디지털 경쟁력 63개국 중 8위... 전년비 2계단 상승

과기부, 스위스 IMD 발표문 공개 美 1위, 싱가포르 2위, 中 16위 집계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이 63개국 가운데 8위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국가별 디지털 경쟁력을 공개하며 4일 발표

했다. 미국과 싱가포르를 지난해에 이어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16위, 일본은 27위로 집계됐다.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일년 전보다 2계단 오른 것은 물론 지식, 기술, 미래준비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상승하며 전반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과기부는 분석했다.

실제 디지털 변환에 대한 준비 정도를 측정하는 미래준비 분야에서는 세부적으로 전자 참여 지수, 인터넷 소매업 매출액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3위를 찍었다.

디지털 혁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나타내는 기술 분야에서는 인터넷 대역폭 속도 지표가 2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단계 상승한 12위에 자리

했다.

새로운 기술을 이해·발전·확장 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는 지식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총액, 1인당 총 연구 개발인력 등이 강점으로 부각되며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10위에 올랐다.

과기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개발 및 적용, 여성 연구원, 통신 분야 투자 지표 등 디지털 경쟁력이 약한 지표에 대해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